

전북대 교육기부센터, 지역 초등학교서 교육 기부

군산 오봉초 찾아 닥종이 인형만들기 등 진행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교육학과 교수)는 22일 군산 오봉초등학교를 찾아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40명인 오봉초등학교는 올해 교육기부 모델학교로 선정돼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를 진로체험 주간으로 설정, 이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닥종이 인형만들기를 비롯해 드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 제공에는 지역센터와 협약을 맺은 교육 기부 기관인 (주)박금속다종이인형연구소, 아리매, 퍼니시아인스 등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날 닥종이 인형 만들기와 드론, 전

통놀이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를 직접 접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기부를 신청한 김광서 교사는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통해 학업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기부자로 참여한 박금속 다종이인형연구소 대표는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22일 군산 오봉초등학교를 찾아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두레후원회 지지격려프로그램 실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22일 두레후원회 회원 38명을 대상으로 지지격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남 거제시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두레후원회는 매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자조모임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문화탐방으로 두레후원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 및 결속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제40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 가져

남원시는 2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보호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자리인 제40회 흰 지팡이의 날 전북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흰지팡이의 날은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인들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높이는 취지로 선언한 날이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주관으로 각 지부 시각장애인 회원 및 가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행사를 비롯해,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시상식,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목련회, '바다 놀이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전주 시 경원동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바다 놀이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목련회 회원 및 가족 30여명,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 전주권대학생연합봉사단 청바지 등 약 4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전문가로부터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주의사항을 설명 받은 후, 공터 바위에 사방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색칠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자장면봉사대 자장면 나눔 봉사

완산구(구청장 최라기) 자장면봉사대(회장 정병훈)와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주부월)은 22일 평화동성당(평화1동 소재)에서 관내 소외계층 및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은 자장면 봉사대에서 직접 준비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옥석에서 조리한 자장면을 해바라기봉사단 회원들이 어르신 한분 한분께 정성껏 대접하고 즐거운 담소도 나누며 진행됐다. 자장면 봉사대 정병훈 회장은 "자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봉사에 보람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세계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20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전라북도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것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익산역 맞이방 및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엠마오사당병원 △예수병원 △원광고 원병원 △익산 성모병원 이 함께 참여해 각종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O/X퀴즈, 건강상담, 응원메세지 작성 등의 활동을 펼쳤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온다리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 행사 실시

전주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HK+) 온다리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지역인문학센터')는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14회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전주대를 비롯해 우진문화공간, 최명희문화관, 전통문화연구소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공모전,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최명희 문화관에서 진행되는 길광편우 만들기 체험 및 명언 만들기 공모전 ▲28일에 사진아카이브8 장근범 대표, 29일에 제즈피아에 출연 이윤희 대표, 30일에 최가우 작가, 11월 1일에 전주대 정승은 교수 초청 인문학 특강을 실시한다.

10월 31일에는 전주대, 전남대, 원광대, 조선대 교수 및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호남권 HK+ 지역인문학센터 좌담회를 열어 권역 내 지역인문학센터의 상생과 교류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어서 와, 학교는 처음이지?' 라는 행사명으로 전통예절교육, 전통놀이 체험, 판소리 공연, 비빔밥 만들기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5일 통권(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90-910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종양지사 010-9388-8874	남원지사 632-3938	고창지사 533-6939
삼천지사 010-2333-40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완성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94
효지지사 010-9645-9335	군산지사 010-6789-0338	남원지사 632-0985	장흥지사 536-3787
	익산지사 666-9323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992-815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롯데물군산점, 드림스타트 대상가정에 보건위생용품 지원

롯데물군산점(점점장 강정구)사롯데봉사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가정 30세대에 보건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드림스타트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롯데물군산점 이승우 부지점장, 아동청소년과 김주홍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롯데물 군산점 사롯데봉사단에서 후원한 물품은 드림스타트 모자가정 중 미혼모자가정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건위생용품 구입이 어려운 가정 30여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대, 기업 지원 비즈니스 테이블' 개최

전주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최은복)은 창업보육센터와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공동으로 '기업 지원 비즈니스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지원 비즈니스 테이블'은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선정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전문위원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수요조사서를 통해 파악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기업의 현안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이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들은 마케팅, 사업 계획서, 창업 아이템, 판로개척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